



광주월드컵경기장과 영주체육관, 빛고을체육관 등 광주지역 공공체육시설 중 절반이 서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역시 서구에 집중적으로 조성되고 있어 자치구간 편차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위적량기자 jrwi@kwangju.co.kr

## 광주 '삶의 질' 서구로 쏠렸다

같은 광주시내에 살고 있지만 남구 월산동 거주 이모(45) 씨와 서구 처평동 주민 정모(47) 씨가 공원이나 체육시설 이용으로 누릴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질은 천양지차다. 단독주택지역에 사는 이씨가 여가시간에 찾을 수 있는 공원은 집으로부터 2km나 떨어져 걸어서는 갈 수 없다. 반면, 서구에 거주하는 정씨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300m 안에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이 있다. 정씨는 퇴근한 뒤 자신의 아내와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운동을 하지만, 남구의 이씨가 공원에 가려면 자승용차를 이용해야 한다.

광주시 5개 자치구 별로 삶의 질의 기준이 되고 있는 공원 및 체육

**삶의 질 기준되는 공원·체육시설 비교해 보니**  
체육시설 전체 50곳 중 23곳 서구에 조성된 근린공원도 자치구별 편차 커

시설의 편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 기반시설이 특정 자치구에 장기간 편중돼 조성된 탓으로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의 정책 전환과 미흡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가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보가 광주시의 '2008년 공원 현황'과 문화관광부의 '2008년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원과 체육시설이 모두 서구에 집중돼 있으며, 최근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남구는 이들 공원 및 시설의 확보율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의 인구는 지난 4월 현재 30만 4천 263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4.2만 5천 334명의 21.4%로, 거주

구는 4곳에 불과했으며, 인구 수나 면적이 큰 북구와 광산구는 각각 10곳이었다. 어린이공원의 편차는 더욱 심하다. 서구는 조성 대상 59곳 중에 무려 49곳이 이미 완료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반해 동구는 14곳 중 5곳, 남구는 57곳 중 22곳, 북구 124곳 중 90곳, 광산구는 137곳 중 81곳에 불과하다. 면적으로 보면 서구는 계획된 어린이 공원의 90% 이상 조성된 셈이다. 이 같은 자치구 별 기반시설의 격차는 고스란히 거주민들의 삶의 질의 차이로 연계되고 있으며, 주택 가격 등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도시계획을 전공한 한 교수는 "공공투자가 특정 자치구에 집중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같은 세금을 내지만 누릴 수 있는 공공서비스는 현격한 차이가 날 수 있다"며 "도시 내 공공서비스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성을 고려한 정책의 시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인구가 가장 많은 북구 33.3%(47만 4천 345명), 광산구 22.9%(32만 6천 677명)에 이어 세 번째다. 500m~1km 이내 설치해 지역민들이 도보로 오갈 수 있도록 설치한 근린공원의 경우 서구는 전체 20개소 중 70%인 14개소가 조성 완료됐으며, 2곳이 조성 중이다. 이에 반해 남구는 16곳 중 절반인 8곳, 동구 4곳 중 2곳, 북구 역시 19곳 중 10곳이 조성됐을 뿐이다. 공공체육시설도 서구에 편중됐다. 동네체육시설에 해당되는 간이운동장을 제외한 육상경기장, 축구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분포 조사 결과 광주시내 50곳의 체육시설 중 절반에 육박하는 23곳이 서구에 설치됐다. 남구는 3곳, 동

## 한나라 쇠신위 "박희태 물러나라"

지도부 사퇴·이대통령 대국민담화문 건의

**박대표 "떼밀려 사퇴 못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여파로 국정쇄신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쇠신특위에서 지도부 사퇴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발표를 건의키로 사실상 결정, 여권 내부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한나라당 쇠신특위(위원장 원희룡)는 1일 여의도 당사에서 5차 전체 회의를 열어 국정쇄신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당 지도부 사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발표를 건의키로 했다. 김선동 특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도부 사퇴와 조기 전담대회 개최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엄중

한 상황인 만큼 청와대와 정부의 인적쇄신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일 끝장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쇠신특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위로하고 국민화합을 담보하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문 발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조만간 청와대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쇠신특위는 또, 권력형 비리 관련 수사기구 및 관행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대검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제 도입 등을 위해 관계 당국 및 시민단체 등과 대책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1'도 이날 오전 긴급 회동을 갖고 "당 대표는 당·정·청 쇠

신의 계기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용퇴의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혀 쇠신위에 힘을 보탤다. 이에 대해 박희태 대표는 일방적 여론에 떼밀려 사퇴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박 대표가 무작정 떼밀려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 청와대는 일단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다"며 "쇄신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내부 단결을 위해 힘써야 할 때"라며 원칙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신양파크호텔**  
Summer Wedding Package  
취미·양식 27,000원 부터  
최저 2인 1박 2일 패키지  
예약실 ☎ 228-4711-2  
대표전화 ☎ 228-8000

**7 광주야생초 추천 제주도 여행 상품!**  
세종특별자치도가 아름다운 섬 제주도 - 새로운 원천으로 더욱 저렴하게 다녀오세요!  
'아시아나 항공과 함께 하는 즐거운 제주도 여행'  
● 상품 1. 제주도 일주일 패키지 219,000원 -  
● 기간 2009.08.14 - 07.14 (항공 포함)  
새롭고 다양한 체험 위주의 여행상품  
1. 제주공항에서 제주-제주도(제주-제주) 여행도 포함  
2. 제주공항에서 제주-제주도(제주-제주) 여행도 포함  
3. 제주공항에서 제주-제주도(제주-제주) 여행도 포함  
4. 제주공항에서 제주-제주도(제주-제주) 여행도 포함  
5. 제주공항에서 제주-제주도(제주-제주) 여행도 포함  
6. 제주공항에서 제주-제주도(제주-제주) 여행도 포함  
7. 제주공항에서 제주-제주도(제주-제주) 여행도 포함

**제주도 여행 상품!**  
세종특별자치도가 아름다운 섬 제주도 - 새로운 원천으로 더욱 저렴하게 다녀오세요!  
'아시아나 항공과 함께 하는 즐거운 제주도 여행'  
● 상품 1. 제주도 일주일 패키지 219,000원 -  
● 기간 2009.08.14 - 07.14 (항공 포함)  
새롭고 다양한 체험 위주의 여행상품  
1. 제주공항에서 제주-제주도(제주-제주) 여행도 포함  
2. 제주공항에서 제주-제주도(제주-제주) 여행도 포함  
3. 제주공항에서 제주-제주도(제주-제주) 여행도 포함  
4. 제주공항에서 제주-제주도(제주-제주) 여행도 포함  
5. 제주공항에서 제주-제주도(제주-제주) 여행도 포함  
6. 제주공항에서 제주-제주도(제주-제주) 여행도 포함  
7. 제주공항에서 제주-제주도(제주-제주) 여행도 포함